



BITNATION

판제아 관할구역

인터넷 주권

비트네이션 : 글로벌마켓 관리방법 (거버넌스를 위한 글로벌 마켓)

비트네이션의 세계에서는 주권이 국가에서 시민으로 결정적으로 변한다.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경쟁업체 간의 경쟁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는 지배력을 개선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줄인다.

2014년 이래로, 비트네이션은 세계 최초의 자발적인 국가, 세계시민신분증, 난민신분증, 결혼, 출생지, 출생지 증명서 등록처를 마련했다. 비트네이션의 분권화된 관할권은 2015년부터 개발되어 왔으며, 86명의 MVP는 토큰 판매시에 전 세계에 공개된다.



판제아 관리 권한

비트네이션의 판제아관할 시민은 자발적 국가, 지방 분권화된 조직 및 모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 P2P계약 즉 다자간의 거래를 체결 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인을 선택하거나 또한 전문분야에서 동료간의 중재를 실시 할 수 있다. 시민들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거버넌스 서비스를 DApps 및 봇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채팅 창이 맨 앞에 떠 있어서 이곳에서 어떤 블록체인으로든 메시네트워크가 가능하여 스마트콘트랙트와 연결된다. 이 스마트채팅계약은 어떤 블록체인에서든 스마트콘트랙트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이더리움(Ethereum)블록체인을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어떤 블록체인의 블록 즉 장부에 기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판제아의 메쉬는 지연에 견딜 수 있고, 두 계약자간에 암호화되어 정보가 보관되며,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 익명의 ID를 사용한다. 분산 웹 파일저장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이 저장되고 평판이나 문제점이 오프체인으로 기록된다.

판제아 중재재판(PAT)은 판제아에 대한 명성을 쌓기 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판제아의 AI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거부할 수 없는 하위 기술을 자동적으로 개선한다. 평판은 다른 시민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서비스와 디지털 법률을 선택하여 서비스와 디지털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좋은 평판을 축적한 시민들은 보상 토큰인 PAT마스터 토큰으로 보상 받는다.

PAT토큰 세일 이벤트

PAT는 이더리움(Ethereum)호환 토큰이다. 현재 비트네이션은 미화 3,000만 달러(300억원)에 달하는 토큰판매이벤트(TSE)를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가격 할인판매 모델이 있다. 첫번째 가격은 초기의 프리 세일기간에 가능하다. 이때는 총 판제아토큰의 34%가 TSE에서 판매된다. 34%는 판제아 플랫폼개발에 사용되며, 18%는 창업자와 핵심 기여자들에게 배당되며, 14%는 토큰세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옵션과 장려금을 적립된다. PAT의 파트너인 BitcoinSwisson은 주문을 받은 만큼의 토큰판매의 안전한 자금을 확보할 것이다.





창립자

수전 템플호프가 비트네이션을 2014년 7월 14일 창립하였고, 아프간에서 70억원 정도의 거버넌스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전이 톱10중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개발자로는 제임스 페넬 템플호프, 엘리엇 타이소니에르, 앤드류 골라이틀리, 마우, 다니엘 프란카, 에이드리안 폴리오, 케네스 릴리흠, 조피 마일즈, 존 매튜, 손자 프레스텍 등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